

제이앤티씨, 국내 첫 반도체 유리기판 공장완공..."하반기 양산 돌입"

- ▶ 100% 자회사 코메트 흡수합병 효과, 반도체 유리기판 기술 내재화 및 수직 계열화 완료
- ▶ 국내최초 월 1만개 생산규모의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공장 완공

<2025-05-22> 글로벌 최첨단 소재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제이앤티씨(204270, 대표이사 조남혁, 장윤정)가 22일, 자사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 유리기판 신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국내 최초로 월 1만개 생산규모의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공장을 완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향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고객사향 양산 출하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제이앤티씨는 2024년 4월, 반도체 유리기판 신사업 진출을 공식화 이후, 현재 총 16개 글로벌 고객사와 NDA를 체결하고 각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샘플을 제공하는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초에는 도금 및 식각 공정에 특화된 자회사 '코메트(COMET)'를 흡수합병하며, 생산 전 공정의 수직계열화를 완성, 계열사인 JNTE에서 자체 제작한 설비에 해당 핵심 기술 내재화를 통해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

회사관계자는 "최근 완공된 생산라인은 경기도 화성 마도공단 내에 위치해 있으며, 월 최대 1 만개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으며, 하반기부터는 일부 고객사 양산 물량이 출하되며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되고 있다"며, "금년 4 분기에는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규모 생산라인 증설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의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가속화하고 있는 유리기판 사업이 제이앤티씨의 중장기 신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도체 유리기판 외에도 다양한 반도체 및 AI 관련 고부가가치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사는 AI 중심의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앤티씨의 조남혁 대표이사는 "TGV 유리기판 사업을 포함한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KRX 컨퍼런스홀에서 6월 30일 개최 예정인 기업설명회를 통해 별도로 소통드릴 계획에 있다"며, "2025년 하반기부터 TGV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AI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본격적인 양산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단기간 내에 글로벌 최첨단 소재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포부를 밝혔다.



사진설명

제이앤티씨(JNTC) 반도체 유리기판 공장 전경

국내 최초 월 1만개 생산규모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공장 완공